



질소산화물규제에의 기대

뱀생태계보전과

오묘한/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이사

1989년 己巳年, 새해가 밝았다.

뱀은 예로부터 징그러운 흉물로 취급되거나, 몸을 보하는데 좋은 약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으나, 자연 생태계 구성요소상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뱀이 근래들어 종(種)의 존속이 위협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달해 있음을 뱀띠해를 맞으며 다같이 걱정해야 할것이다.

뱀은 생태학적으로 죽은 시체를 먹지 않는데도 처에 농약으로 인한 동물들의 죽음이 속출하고 있어 오염되지 않은 곳을 피해 산속깊이 이동해 버려, 뱀이 먹지않은 시체들을 들쥐들이 몰려들어 처리를 하는데, 들쥐들의 극성으로 나무껍질이 벗겨지는등 나무들이 수난을 겪고, 들쥐들이 옮기는 유행성 출혈열로 인명(人命)까지 위협을 받게 되었다.

또, 새마을 사업 권장 조항으로 초가집을 모두 스텔트지붕으로 개량해 옛부터 재물을 지킨다고 믿었던 구렁이들이 모두 담벽이나 지붕에서 사라지고 그자리를 쥐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구렁이들의 먹이였던 쥐들의 극성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쥐잡기 운동을 전개하지만 쥐들과의 싸움에서 인간들의 승리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이처럼 뱀들이 우리 주위에서 사라지고, 쥐들의 극성은 더욱 치열해져 가는 상황에서 우리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은 더 바랄수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한술 더떠서 뱀은 몸에 좋다는 미신같은 사고방식인지 뱀탕집은 여전히 성업중이고 뱀잡이 방법도 점차 지능화되어 최근에는 그물을 사용하는 몽땅잡이 방법이 사용된다고 한다.

수년전 혐오식품이라는 이유로 뱀탕집들이 도시외곽으로 쫓겨났던 때가 있었다. 뱀탕영업주들이 뱀탕 도시영업허용하라는 명분의 데모가 있고 난뒤부터 당국은 길가에서 전시하지 않고 안보이는 곳에서의 영업행위는 묵계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뜩이나 오염되는 환경으로 뱀들의 수가 줄어가고 있는데, 음식으로까지 씨를 말려간다면 생태계 파괴는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과충류를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환경청인데 이런 문제를 필자는 야생동물보호라는 견지에서 몇번이나 대책을 건의한바도 있다. 예를들면, 뱀을 잡는 행위를 덮어놓고 막으려고만하지 말란 것이다. 왜냐하면 칠점백이 한마리를 잡으면 2만원을 벌 수 있는데 덮어놓고 막는것도 문제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어린뱀은 잡지말고 투망식 포획을 금지하는 어떤 조치가 시급히 요청된다 하겠다.

또한 뱀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지나친 뱀애호를 계도해 가는 일도중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에 따르면 뱀은 단백질이 많다는것 뿐인데 고단백 식품은 다른 음식물로도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고, 정력문제도 뱀이 비 E나 U보다 좋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을 국민에게 인식시키는 일도 고려되어야 할 문제들이다.

산성우나 질소산화물등에 의한 공해는 뱀 뿐만 아니라 모든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산성우 대책은 UN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문제로 소피아(불가리아수도) 선언이 산림의 사멸, 호수의 산성화, 곡물에의 타격, 문화재의 부식, 인간생존의 위협등, 대기오염에 기인하는 환경문제에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여기에 관심을 갖는다면 어느정도의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본다.

소피아 선언의 요지는 각국에 있어서의 질소산화물(NO_x)의 배출을 가능한 한 빠르게 늦어도 1998년까지는 30% 삭감하라는 것이다. 이 선언에 서명한 나라는 「대기오염 콘트롤 조약」(1979년)의 다른 서명국에 대하여 약속 이행 의무가 있으므로 질소산화물의 배기 및 국경간의 유량(流量)의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삭감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유의해 볼 문제들이다.

세계 자연보호기금(WWF)은 이보다 더욱 강력하게 「유엔·ECE지역의 가장 파괴되기 쉬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75% 삭감할 것을 주장한다.

질소산화물은 주로 화석연료에 의한 화력 발전이나 자동차로부터 배출되어 산성우, 스모그, 온실효과등의 원인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문제가 그 어느때보다도 농도깊게 제기되고, 환경청의 행정기능 확대여론과 환경보전운동의 확산, 눈만뜨면 발행되는 환경신문·잡지의 홍수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쾌적한 환경의 질을 높여가는데 공헌하고 있느냐를 생각해 볼때이다.

헌법조항에 명시된 환경권을 부각시켜 이제야 말로 단 하나뿐인 지구를 살려가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받아야 할 때임을 생각하면서 己巳年 뱀띠해에는 뱀의 생존권도 보장해 주도록 하자. *

